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54 | 2022 September



두루두루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세계적인 물문제를 해결

K-water는 국제협력으로
모두가 깨끗한 물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여러 나라와
'두루두루' 손잡고 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K-water는 국제협력으로 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글로벌 물 협력 플랫폼을 설립하고,
다양한 물문제 해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그동안 축적된 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K-water는 국제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ilovekwater

#kwater국제협력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국제협력을 검색하고
<kwater국제협력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kwater국제협력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국제협력을 검색

- <kwater국제협력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 이벤트 자동 응모 완료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접수 마감일 9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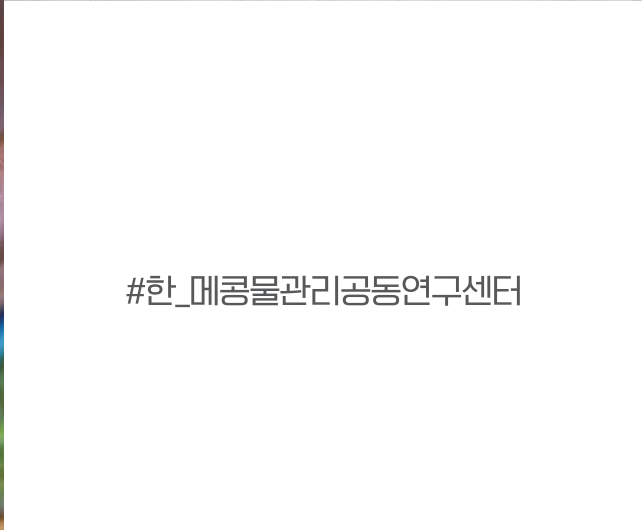
선물 발송일 10월 15일경

※ 10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아시아물위원회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2. 09 | Vol. 654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2년 9월 1일
통 권 654호
발행인 박재현
편집인 장훈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홍보실
제작·대행·인쇄 (주)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취재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8 제로여행

깊은 숨을 내뿜는 시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14 제로상점

지구의 유익한 가치를 담다
순천 <유익한 상점>

18 제로푸드

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과일
순천단감

20 무해한 사람

버리는 타이어로 신발을 만들다
이온 트레드앤그루브 대표

24 지구보고서

기후변화, 탄소중립이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려면?

26 내가 그린 도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 강국으로 떠오른
호주



“
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소비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



30 두잇두잇

힉한 데 착하기까지 한
친환경 보자기 포장법

32 건강처방전

건강한 추석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은?

34 수(水)타빅스가 간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선물합니다

38 K-water의 수

여러 나라와 손잡고 물문제를 해결하는
K-water

40 K-water 리포트

K-water는 국제협력으로
세계 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44 K-water 사전

K-water는 국제협력으로 물문제를 해결합니다

46 어느 멋진 날

우리, 맥주 한잔할래요?
울산권지사 직원 4명의
수제 맥주 만들기



**K-water는 AWC 의장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우수한 물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물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50 마음상담소

상사와 얼마나 수다를
나눠야 할까요?

52 퀴즈있수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물산업이 뭐길래?

54 K-water 포커스 ①

스마트 물관리 체계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다

56 K-water 포커스 ②

담주변지역 농가와 상생하며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다

58 News

60 방울이와 DIY





깊은 숨을 내뿜는 시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주암호에서 상사호를 지나 순천만습지까지 두루두루 여행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전라남도 순천시는 공기 청정하고 수질 깨끗했다. 여러 도시의 식수원이 순천에 있는 이유가 이것이겠다 싶었다. 이제는 공존을 위해 자연환경을 공들여 가꾼 덕도 있겠거니 짐작한다.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여행기 이야기



송광사

송광사는 크고 우람한 도량이다. 육당 최남선의 표현대로 '절집 중 만형의 집에 드는 느낌'이다. 가람 배치가 자유로운 것도 특징이다. 통상적인 일직선 배치 대신 사방으로 가람을 흩어놓는 배치를 택했다. 돌탑과 석등, 풍경(風磬)이 없는 점도 이채롭다. 풍수지리와 수도정진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고려 이후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로, 최근 이곳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이 촬영됐다.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문의 061-755-0107



안온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호수

순천시는 녹지대가 많은 도시다. 전체 면적의 약 69%가 산림이다. 덕분에 도시 어디서나 나무가 보인다. 순천의 공기 기온도가 '맑음'인 이유가 아닐까. 공기가 청정하다는 건 숨쉬기가 편하다는 뜻이다. 숨이란 본디 충분히 뱉어내야 깊이 들이마실 수 있는 법이다. 깊은 호흡으로 숨을 내뿜어 개운해진다면, '코로나 엔데믹시대'에 이보다 더 적절한 여행지는 없을 것이다.

순천 일대는 습지가 많아 사람에게도, 지구에게도 이로운 곳으로 꼽힌다. 습지에서 걸러지고 정화된 생활용수가 호수로 들고 개천으로 흘러 바다까지 이어진다. 또 사람에게도 닿는다. 그 깨끗한 물을 따라 곳곳을 주유(周遊) 하니 굳었던 마음이 절로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다.

물빛 푸른 주암호부터 찾았다. 섬진강의 가장 큰 지류인 보성강의 물줄기를 막아 만든 주암호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염원 하나 없는 호수로 유명하다. 나무 밀집도가 좋은 조계산(887m)과 모후산(919m)에 폭 안기듯 자리해, 호안(湖岸)을 길게 따르는 도로 어디서든 식생 건강한 숲이 이어지는 것도 특징이다. 일교차가 큰 봄·가을철 아침에는 물안개까지 뽀얗게 돌아 몽환적인 풍경을 이룬다.

주암호에서 송광사 동구를 지나 선암사 쪽으로 가면 길은 그 어귀에서 상사호를 만난다. 주암조절지댐으로 생긴 상사호는 주암호

와는 다른 호수인 듯 보이지만, 실은 주암호와 도수터널로 연결된 하나의 호수다. 이곳 또한 깊고 푸른 산 안에 있어 오래 '물멍', '산멍' 하며 쉬어가기에 좋다.

지구도 호수도 사람도 건강하도록

순천에서 습지는 으레 '순천만'을 뜻한다. 육지와 물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지닌 습지는 물을 정화하는 지구의 '숨' 같은 존재다.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숨구멍'이자 홍수 때 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배수를 조절하는 '천연 댐'이기도 하다. 습지라는 경계 지역 특유의 풍경을 좋아하는 이라면, 주암호 상류에 있는 보성군 복내면도 둘러볼 일이다.

이곳의 인공습지들은 자연습지인 순천만과는 다른 형태의 습지라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반석리에 있는 '주암호 인공습지'와 유정리에 있는 '주암호 생태습지'는 같은 듯 다른 특성을 지녀 돋보인다.

상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한 완충녹지대란 점도 같지만, 인공습지는 자연습지에 가깝고 생태습지는 잘 꾸며진 체험형 습지에 가까워 취향대로 골라 거닐 수 있다.

둘 중 어느 곳에서든 오래 머물면 참개구리가 웅덩이에 폴짝 뛰어드는 소리며 바람이 습지를 훑으며 내는 소리 등을 쉽게 자주 들을 수 있다.



선암사

태고종의 본산인 선암사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담박한 미를 간직한 산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 중 한 곳으로, 역사스럽게 개·보수한 흔적이 별로 없어 좋다. 대웅전과 승선교, 해우소 등 유명 볼거리가 많은 것도 매력이다. 이 중 놓치고 오기 쉬운 볼거리가 원통전이다. 처마를 길게 돌출시켜 특이한 원통전은 '모란 꽃살문'이 아름다운 당우, 천장에 있는 동물 조형물들도 찾아보고 올 일이다.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문의 061-754-5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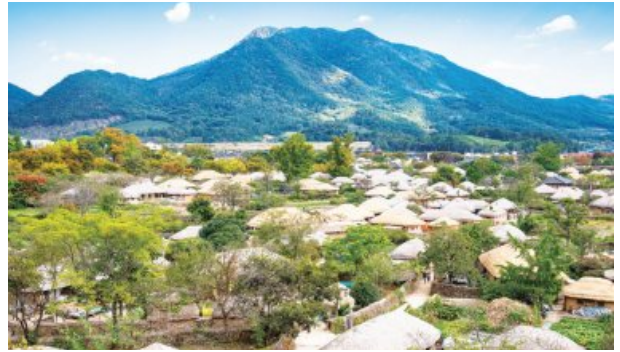


순천만에서 배우는 공존의 바른 예

해 질 녘엔 순천만습지로 길을 잡았다.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낀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다. 2,645만㎡의 광활한 갯벌과 231만㎡의 갈대밭이 장관을 이루는 생태계의 보고로, 국내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국제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됐고, 지난해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됐다. 농계, 칠계, 짙뚱어 같은 온갖 갯것들이 꿈지락거리고 매해 겨울이면 흑두루미 목직하게 날아올라 장관을 이루는 것도 바로 이곳이다.

‘공존’이란 키워드는 이 모든 구구절절한 설명 속에 숨어 있다. 개발 대신 보존을 택하고, 습지의 온전한 보존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한 노력들이 지금의 풍경 속에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만가만 바라보면 공존이란 키워드를 향해 가는 순천만의 지금이 보인다. 순하게 푸른 갈대밭에서는 ‘전봇대 없는 습지’가 보일 것이고, 해 지는 용산전망대에서는 경관농업단지의 역할이 짐작될 테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각종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땅’에도 들어서 보자. 대대포구에서 출발하는 생태탐방선을 타면 습지란 자연의 드라마를 다른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낙안읍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읍성 중 하나다. 동헌과 객사, 내아 등 옛 관청과 함께 둥글둥글한 초가지붕이 빼곡해 골목골목을 걸으며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기에 좋다. 마을을 동그랗게 감싸 안은 성곽(1.4km) 위를 걷는 재미도 남다르다. 남문과 서문 사이 계단 위가 전망 포인트다. 이곳에서 낙안읍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순천에서 하루 이상 머물 계획이라면 초가집 킷마루에 앉아 별을 볼 수 있는 민박체험도 해보자.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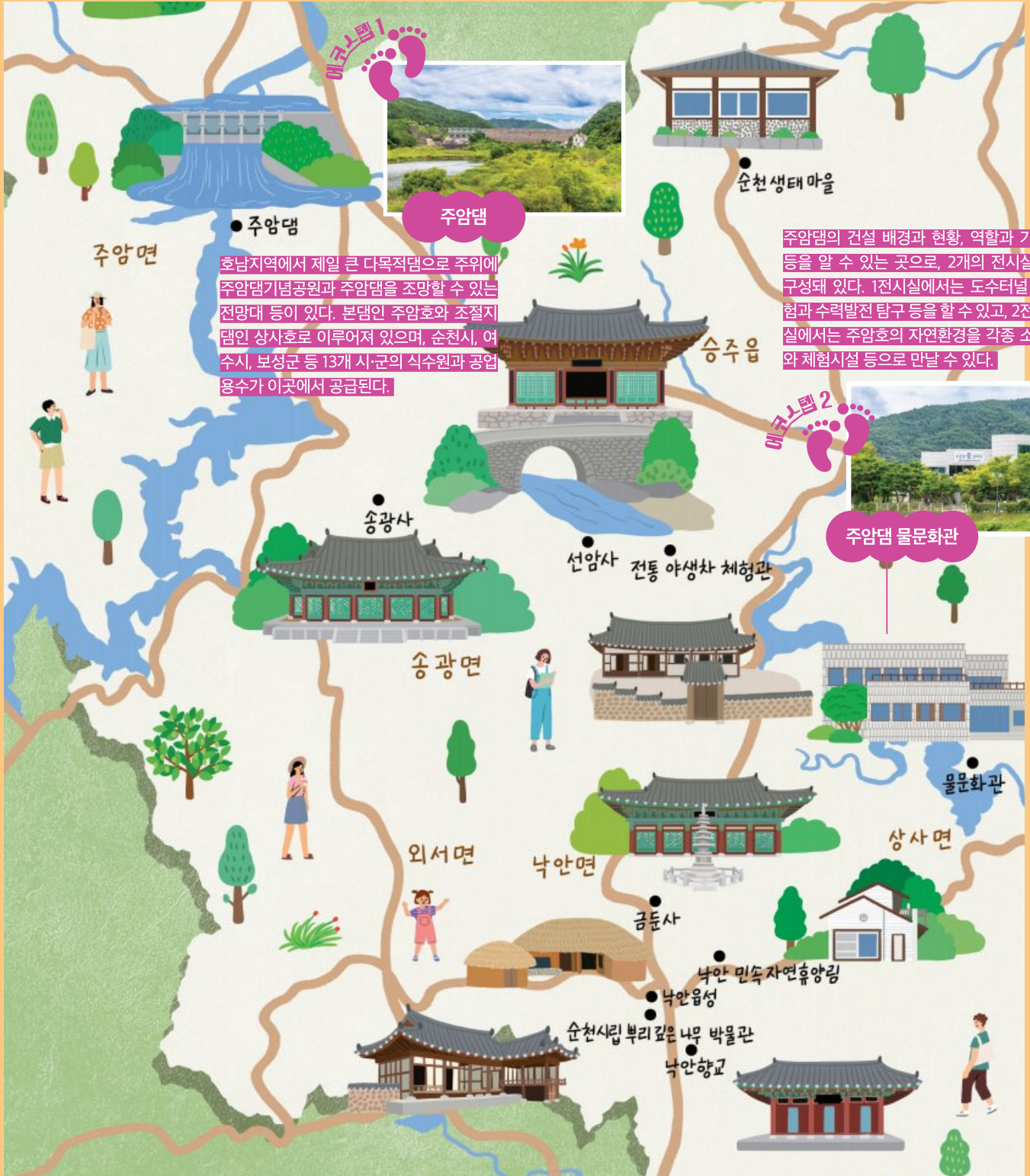
문의 061-749-8831





찾아가GO, 체험하GO

문화와 자연이 함께 하는 순천 여행 스포트



메이스트립 1

주암댐
 호남지역에서 제일 큰 다목적댐으로 주위에 주암댐기념공원과 주암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이 있다. 본댐인 주암호와 조절지댐인 상사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천시, 여수시, 보성군 등 13개 시·군의 식수원과 공업용수가 이곳에서 공급된다.

주암댐의 건설 배경과 현황, 역할과 기능 등을 알 수 있는 곳으로, 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1전시실에서는 도수터널 체험과 수력발전 탐구 등을 할 수 있고, 2전시실에서는 주암호의 자연환경을 각종 소리와 체험시설 등으로 만날 수 있다.

메이스트립 2

주암댐 물문화관





지구의 유익한 가치를 담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순천 <유익한 상점>

요즘 소비 트렌드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가치'와 '취향'이다. '가치 소비'는 환경보호나 동물복지·공정무역 같은 사회적 가치를, '취향 소비'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가성비보다 우선시해 소비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두루 만족시키는 상점이 순천에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비'를 지향하는 <유익한 상점>이다. '레트로'한 한옥에서 '사회 환경적 가치'가 담긴, 그러면서도 디자인 예쁘고 품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유익한 상점>은 상점 이상의 활동으로도 주목받는 곳이다.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오래된 한옥에서 꿈꾸는 '반짝거림 한 줌'

활짝 열렸음에도 빼꼼히 들여다보게 되는 곳이 있다. 주로 대문이 있는 한옥이 그렇다. 그 안이 몹시 궁금하긴 한데 성큼 들어서기엔 왠지 조심스럽다. 순천 역전길에 있는 <유익한 상점>을 찾았을 때도 그랬다. 한옥 특유의 고즈넉함이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해 한참 동안 대문 앞을 서성거렸다. 그때 눈에 들어온 문구가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였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작은 상점'이라는 뜻일 텐데, 실제 문구 뒤 상점에서도 작은 주황색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 따스했다. "처음 상점을 열었을 때 동네 분들 반응이 딱 그랬어요. 되게 궁금한데 못 들어오시는..." <유익한 상점>의 양진아 대표가 짐작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문을 연 지 5년이 지난 지금 <유익한 상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양 대표는 "이젠 좀 더 편하게 오셔서 우유팩도 놓고 가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제안도 해주세요"라며 "많은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이 그렇게 추가됐어요"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워지고, 소개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상점은 더욱 반짝이게 됐다.

66

지구촌 사람들의 공존에 기여하는 소비재를 소개하고, 지구에 무해한 소비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비 활동을 돕는 공간이란 얘기다.

99





제로상점



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이면서 순천다운 것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 즉 '무엇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다. 그에 걸맞은 답 또한 여러 방면에서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익한 상점>은 이 같은 질문에 '유익한'이라는 뚜렷한 답을 내놓은 곳이다.

사전적으로 '유익한'은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어디에 혹은 무엇에 유익하다는 것일까? 양 대표는 "지구와 지역, 그리고 사람에게 사회·환경적으로 유익한 물품을 모아 소개하는 편집숍"이란 설명으로 <유익한 상점>의 지향점을 밝혔다. 지구촌 사람들의 공존에 기여하는 소비재를 소개하고, 지구에 무해한 소비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비 활동을 돕는 공간이란 얘기다. 이를테면 네팔 여성들이 직물로 짠 가방을 사면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고, 코끼리 똥으로 만든 공책을 사면 나무 한 그루를 베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는 식이다. 지역의 숨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브랜드를 알리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꾸준히 해 왔다.

순천만의 색채로 매력을 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제품들도 있다. 순천 어린이들의 그림을 달력이나 메모지 디자인에 활용한 제품이나, '순천만 마그네틱'과 '갈대 빗자루' 같은 '로컬 굿즈' 등이 그것이다. 이 제품들은 특히 지극히 순천다운 것들에 대한 꾸준한 고민의 결과라 더 의미 있다.

<유익한 상점>은 상점을 벗어난 활동의 범위도 넓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익 플리마켓'과 우유팩을 모아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로 보내는 '밀크로드(milk road) 캠페인' 등을 개업 초기부터 진행해왔고, 최근엔 '유익'이라는 지역지까지 발간해 화제를 모았다.

양 대표는 "앞으로 순천다운 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익한 상점> 표 '로컬 굿즈'들이 기대된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interview

**보다 순천다운, 순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체 제작 상품'의 비중을
점점 더 높여가고 싶어요.**
〈유익한 상점〉 양진아 대표



〈유익한 상점〉을 열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지만, 과거 국제개발협력 NGO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NGO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지구촌과 지역, 그리고 사람이 연결되는 유익한 지점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공정무역, 제로웨이스트 같은 유익한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나요?

공정무역 인증 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 멸종위기 동물 관련 제품, 친환경 제품, 제로웨이스트 제품, 순천에서 생산된 로컬 굿즈, 자체 제작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인증 제품으로는 커피, 설탕, 핸드메이드 바구니, 초콜릿 등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만든 가방·문구류 등과 유기농 면 소재의 양말과 손수건, 그리고 대나무칫솔을 비롯한 설거지바 등 제로웨이스트 제품들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서 만든 씨글라스 액세서리와 공정무역 인증 인형들이 품질이 좋고 디자인이 예뻐 인기가 많아요.

〈유익한 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순천의 '로컬 굿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순천만 마그네틱과 아이들 그림 메모지 등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 '갈대 빗자루'는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순천만에서 자란

갈대의 순을 뽑아 건조한 후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든 빗자루인데, 갈대를 묶는 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순천에서 난 것들입니다.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 층간 소음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올해는 컴퓨터 키보드 사이 먼지 청소용이나 커피콩 분쇄기 청소용 등으로 빗자루의 쓰임새를 달리해 제작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해 나갈 생각이세요?

한옥 전체를 리모델링해 과거와 현재가 숨쉬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볼 계획입니다. 한옥 상점 맞은편 공간은 다락과 마루가 있는 카페로, 현재 사무실 공간은 '뭔가 재미난 게 항상 돌아가는' 팝업 공간으로 변신시킬 생각이예요. 두 곳 모두 지역적이고 사회·환경적인 가치 안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오면 그 자리에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 누구나가 편하게 오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상점)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길 77

문의 0507-1315-0027



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과일 순천단감

순천은 자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태와 미식의 도시다.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맛을 가진 에코 푸드(Eco-food)가 풍부한 데 순천단감도 그중 하나다.

글. 최행좌 출처. 순천시

66

순천의 나지막한 산과 주암호 근처의 맑은 물,
그리고 여름 동안 뜨거운 햇살을 머금고 자란
순천단감은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99



우리나라 대표 단감 주산지, 순천

가을철 대표 과일인 감은 단감과 뚝은 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단감은 어린 시기에 뚝은맛이 사라져 나무에서 따면 바로 먹을 수 있다. 잘 익은 단감은 손으로 눌러보면 단단하게 잡힌다. 붉은 노란빛을 띠는 껍질을 깎으면 주황색 속살이 드러난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고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우리나라에서 감은 언제부터 재배되었을까? 고려시대 <농사집요>에 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감은 고려시대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단감은 지리산 남부 지역에 산재해 있었으며, 현재 재배되고 있는 단감은 1910년경 일본에서 도입해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따뜻하기로 소문난 전라남도 순천시는 단감 주산지로 꼽힌다. 연평균 약 13도로 순천의 온화한 기후는 단감을 재배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여기에 순천의 나지막한 산과 주암호 근처의 맑은 물, 그리고 여름 동안 뜨거운 햇살을 머금고 자란 순천단감은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명품 단감

예부터 순천지역에는 감, 복숭아, 배, 매실 등 다양한 과일이 자라고 있었으며, 특히 감은 토질과 기후가 알맞아 감나무가 없는 농가가 없을 만큼 흔했다. 옛날에는 재래종이 재배됐으며, 1910년부터 단감 재배를 시작했다. 해마다 단감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급증하자 1933년에 민간단체로 단감 협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현재 순천단감은 생산량 가운데 80%가 부유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모양이 탐스럽게 동글동글한 단감은 저장성이 좋아 많이 재배된다. 순천에서 생산된 단감은 모양이 균일하고 색과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순천시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순천미인단감'은 2008년과 2009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품 과일의 반열에 올랐다. 순천단감은 2018년 40톤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며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무해한 사람

TREAD & GROOVE

버리는 타이어로
신발을 만든다

이온 트레드앤그루브 대표





자동차의 신발이었던 타이어를 업사이클링해 사람의 신발로 만든 스타트업 대표가 있다. 2021년에 설립한 트레드앤그루브 이온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폐타이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친환경 신발을 만드는 그를 만났다.

글_ 최행좌 사진_ 김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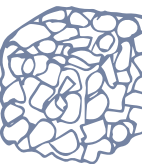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했는데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가 우연히 해외 뉴스를 보게 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포장도로에서 타이어를 신발처럼 신는 모습이었습니다.

‘앗, 바로 저거다’ 싶었죠.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면 환경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폐타이어로 튼튼한 신발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피, 땀, 눈물로 만든 타이어 신발

대학시절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 3명이 모여 만든 트레드 앤그루브(TREAD & GROOVE)는 타이어의 고무 표면(tread)과 표면에 새겨진 무늬(groove)를 뜻하는 회사 이름에서부터 타이어를 활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했는데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가 우연히 해외 뉴스를 보게 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포장도로에서 타이어를 신발처럼 신는 모습이었죠. ‘앗, 바로 저거다’ 싶었죠.” 이온 트레드앤그루브 대표는 창업 아이템을 운명처럼 만났다고 한다.

해마다 자동차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폐타이어 발생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폐타이어는 재생 타이어나 고무 밧줄 등으로 다양하게 재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버려지는 폐타이어가 적지 않다. 이런 타이어들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하는 데 타이어는 유기 화합물질인 만큼 토양과 지하수로 침투하면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다이옥신이나 염화수소 등 유해 물질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트레드앤그루브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면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버려진 타이어를 재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오염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폐타이어로



튼튼한 신발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깨달았다. 경험도, 경력도 없는 학생들끼리 만든 팀이다 보니 신발 한 켤레를 완성하기까지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타이어를 공급받는 일부터 타이어를 가공하는 일, 신발을 디자인하는 일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최근에는 한국타이어, 롯데렌트카 같은 대기업에서 타이어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폐타이어로 신발을 제작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타이어 야적장을 돌아다니며 폐타이어를 구했어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죠.” 성수동 수제 신발 공장을 찾아가며 자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수십 군데에서 퇴짜를 맞기도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청년들의 진정성을 느낀 한 수제화 업체를 만난 덕분에 자식처럼 소중한 첫 신발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친환경 신발

신발을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다. 특히 폐타이어로 신발을 제작하는 과정은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타이어에서 순수 고무층을 정교하게 분리해 신발의 아웃솔(밑창)을 가공해 만들기 때문이다. 트레드앤그루브는 수거한 폐타이어를 공장에서 세척하고, 정밀가공을 통해 신발의 재료로 쓴다.

신발을 만드는 공정은 타이어의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는 해리티지 방식으로 트레드앤그루브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타이어 1개당 3~4켤레의 신발을 만들 수 있다. 타이어의 일부를 떼어내 쓰다 보니 나만의 밑창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 현재 트레드앤





그루브는 샌들, 슬리퍼, 스니커즈, 부츠 등 총 12가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타이어를 활용한 덕에 접지력과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트레드앤그루브 제품의 강점인데, 고객의 호평이 줄을 잇는다.

“요즘 MZ세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타이어를 활용한 신발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또 밀착이 타이어여서 ‘잘 안 미끄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 덕분에 소비층은 주로 20 ~ 30대 분들이예요.”

최근에는 한국타이어와 협업해 환경친화적 한정판 스니커즈 ‘에이치케이 그루비(HK Groovy)’를 만들었다. 총 200컬레 한정판으로 준비한 이 상품은 현재 완판돼 추가 생산·판매를 진행 중이다.

환경을 지키는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 것

트레드앤그루브의 목표는 분명하다. 고객이 신발을 사용함에 있어서 친환경 소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몇 년 새 환경과 사회를 생각한 착한 소비가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ESG를 실천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한 걸음이 기업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소비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이온 대표는 올 하반기 새로운 신발을 출시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동안 대중적인 신발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트레드앤그루브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신발로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하다. “사실 세상에 나오지 못한 신발도 많아요. 정말 열심히 디자인하고 개발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빛을 보지 못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서 사랑받고 싶어요.”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각인시키고 싶다는 이온 대표는 더 많은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환경을 지키는 신발이 룹러하길 기대하고 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 문의 070-7799-8520

🌐 홈페이지 www.treadn groove.com



기후변화, 탄소중립이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려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임은 차치하고서라도 ‘화두로 꺼내기 어려운 주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주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일들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이제 30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탄소중립 달성은 몇몇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글_ 박상욱 JTBC 환경분야 심층취재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이행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반응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일 아냐?”, “물론 중요하다는 거야 알지만, 지금 당장 먹고살기 바쁜걸” 등의 반응입니다. 그 기저엔 기후변화가 ‘먼 일’이라는 생각이 자리합니다. 한 반도가 아닌 극지방의 일이라는 ‘물리적 거리감’, 내가 아닌 먼 후손의 일이라는 ‘시간적 거리감’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먼 일’이 아니라고 느끼더라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이 단어가 갖는 ‘송고함’이란 이미지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처럼 편한 저녁식사 자리.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선뜻 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꺼낸다고 했을 때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겁니다. ‘친구 아무개는 고배기량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이야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열심히 고기 구워 먹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맞는 걸까?’ 등 결국 마음을 잡고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될 테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서로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소식(신기술 개발, 신제품 출시, 수익구조 변화 등)을 쏟아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 자동차 기업이 새로 전기차를 공개했는데 1,000km를 간다더라”, “그래, 안 그래도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전기차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이야”, “B 기업이 요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고 있는데, 여기 주식을 더 살지 말지 고민이다”, “C 기업은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ESG 경영 실적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더라.”

이런 와중에, 최근 이사와 함께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한 친구에게, 친구들은 저마다 훈수를 둡니다. “요즘 인건비에 자재비까지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엄청 올랐다더라”, “무몰딩, 무문선 인테리어가 대세라더라”, “요즘 거실이랑 주방 위치를 바꾸는 집들도

있다더라” 여러 이야기가 오가다 창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슈퍼로이 창호로 바꾸면 관리비가 확 줄어든다더라”, “단열재 보강도 요즘 많이들 한다더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와 같은 단어는 없었지만, 모두 이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중립 이행은 이처럼 어느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에어컨을 덜 틀고, 채식을 하고, 10여 km의 출근길을 자전거로 다니는 등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기여는 아니지만, 이 역시 나름의 기여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ESG 경영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투자하는 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에 나서는 일도, 모두 탄소중립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요.

30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그 사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몇몇 ‘열성 생태환경주의자’만 나선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나, 결국 탄소중립의 관건은 ‘모두의 참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송고함’, ‘탄소중립의 당위성’에만 매몰되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옆집 박 씨도, 자연과 한 몸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내는 앞집 김 씨도, 농사짓는 이 씨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최 씨도… 모두가 불편해하지 않고 이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탄소중립을 향해 제대로 된 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겁니다.

※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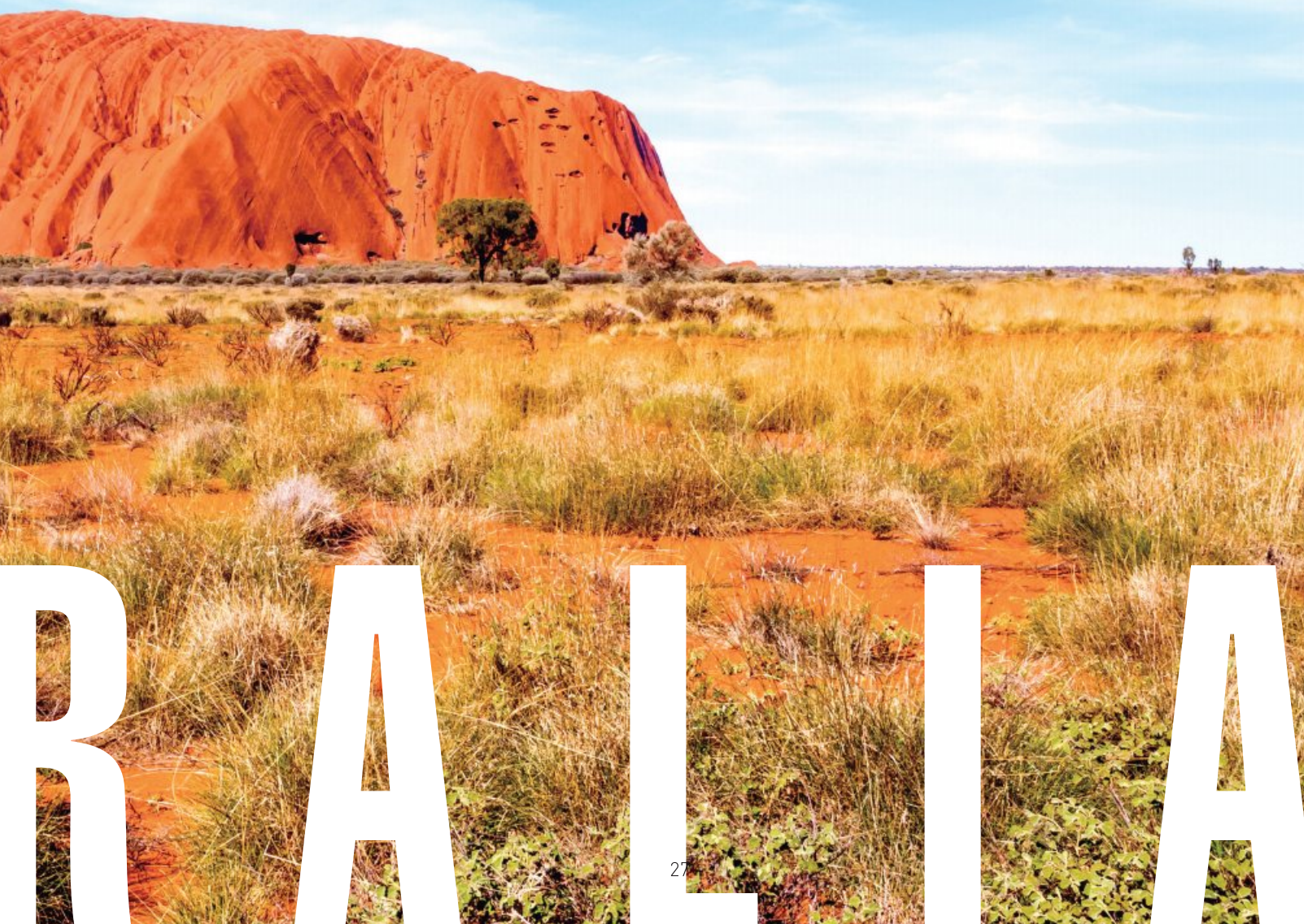
수소 강국으로 떠오른

AUSTRALIA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가장 작은 대륙이다. 광활한 땅만큼이나 대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호주는 미래 에너지로 수소에 주목했다. 풍부한 태양광, 풍력, 수력 자원을 바탕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호주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_임산하 출처_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BRALIA



친환경 에너지에 주목하다

세계 각국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는 연료, 연료전지, 산업용 공정은 물론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소는 물에서 얻을 수 있어 양이 풍부하며,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호주는 이러한 수소경제 흐름에서 핵심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 '국가 수소 로드맵'을, 2019년에는 '호주 수소 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 강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호주는 수소 가치사슬 중 '생산과 운반'에 집중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호주의 수소 산업을 2030년까지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2050년에는 호주 전체 수소 생산량의 75%를 수출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국립지질자원연구소에 따르면 호주 국토의 약 11%에 해당하는 면적이 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갈탄에서 추출한 수소를 액화해 일본에 수송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아시아 국가로 수출할 전망이다.

호주 최초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한 태즈메이니아

호주 남부에 위치한 섬인 태즈메이니아(Tasmania) 주는 호주 최초로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한 지역이다.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서 2020년 11월 호주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소비 기록을 달성한 후 2040년까지 목표를 200%로 증대시켜, 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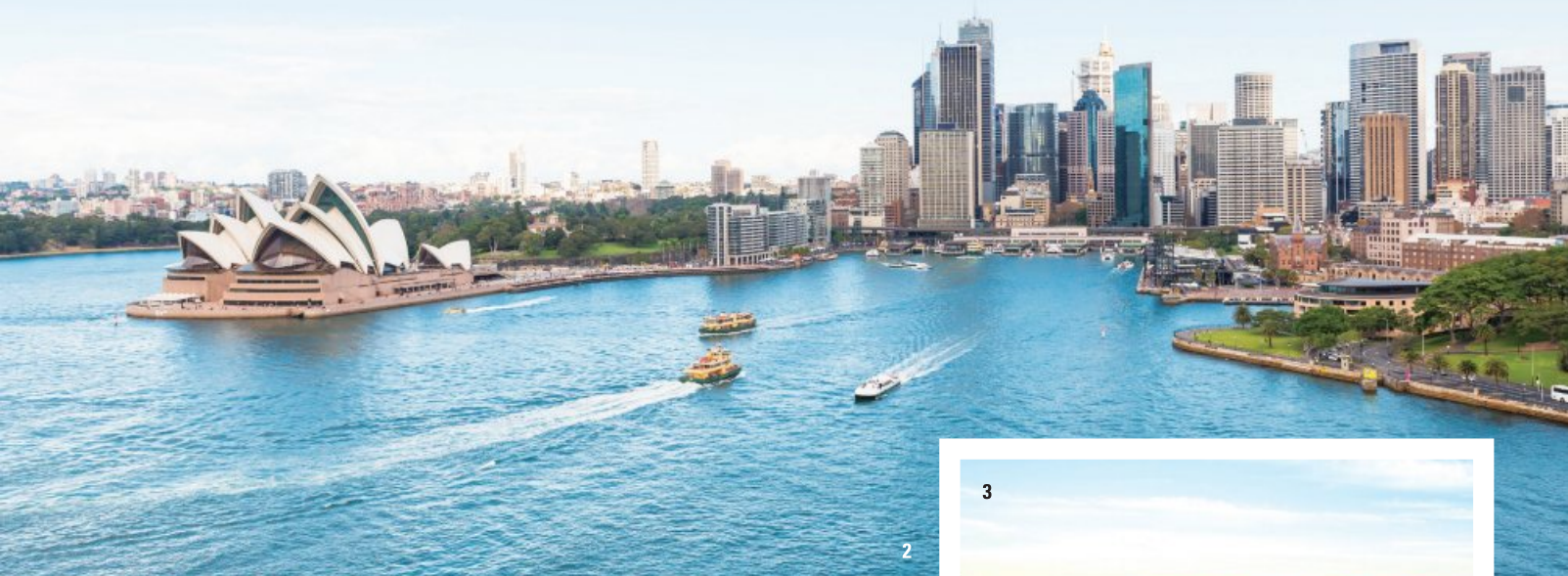
또한 2030년까지 대규모 그린수소를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다. 태즈메이니아 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수력과 풍력 자원이 풍부하고, 재생에너지의 전력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주보다 그린수소 생산 비용이 10 ~ 15% 더 저렴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태즈메이니아 주는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바로 'Bell Bay Advanced Manufacturing Zone'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저장, 수출을 위한 수소 허브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는 내수용으로 공급하거나 수출할 계획이다. 벨베이(Bell Bay)는 중공업, 광물 가공업, 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산업 지역으로 고전압 전송선, 수자원, 철도, 도로, 항구 등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태즈메이니아 주는 하루 4.5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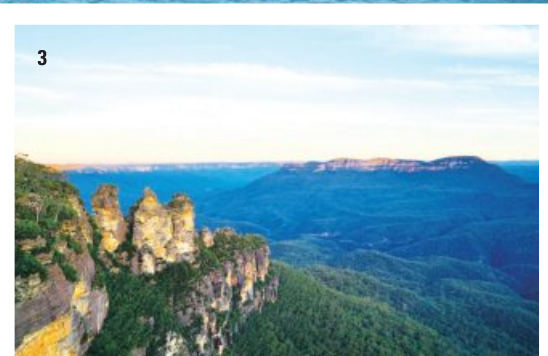
1. 태즈메이니아 해안선

1





2.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전경
3.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



호주 수소경제의 중심, 뉴사우스웨일스

호주 남동부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호주의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수소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조성해 수소 대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헌터(Hunter)는 교육·방위·첨단제조·관광의 중심지로 주요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가 높아 그린수소 밸류체인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동부 해안을 따라 산업단지화 도시들과의 육상 연결성이 구축되어 있고 호주 내 최대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터밸리는 재생에너지 구역으로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12GW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석탄, 알루미늄, 암모니아의 생산, 기술, 엔지니어링 인력이 풍부하고 수소 기술 연구 클러스터 등 대학들과의 기술협업을 통해 수소 허브를 구축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이에 'Hunter Hydrogen Network'가 진행 중이다. 헌터 해안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대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공업용, 산업 운송용 연료와 그린암모니아를 통해 수출하려는 계획이다. 헌터 지역의 리델석탄화력발전소(2023년 폐쇄 예정),

머스웰브룩 탄광(2024년 폐쇄 예정)을 재활용해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파이프라인을 인접 도시인 뉴캐슬 도심 및 항구로 연결할 예정이다.

또한 'Tallawarra B project'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천연가스와 수소를 혼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이 발전소는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16MW 급속 내연식 가스터빈 발전으로 연간 15만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탈라와라 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되 탄소 발생량을 상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체 연료의 5% 이상을 그린수소를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소 산업에 적극적인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상업용 수소 트럭과 같은 상업적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연료 보급 네트워크를 개발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는 기술 시범 완료 및 향후 규모 확장을 위한 기반을 수립하고, 2030년 이후 수소 산업의 영토를 넓혀갈 전망이다.

싱크대나 옷장 서랍에 보관하고 있는 보자기는 무엇이든 담아내는 친환경 아이템이다. 언젠가 써먹겠다고 차마 버리지 못한 보자기를 펼쳐보자. 손끝에서 보자기가 신기한 마법을 부릴 일만 남았다.

글. 조수빈 출처. <첫 번째 보자기 선물>

힙한 데 착하기까지 한 친환경 보자기 포장법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보자기

보자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작은 찬'이다. 예부터 귀한 선물을 보낼 때, 물건을 싸두거나 옮길 때 사용한 생활 포장재였다. 한복을 짓고 남은 천이나 이불 등을 만들고 남은 천으로 만들었던 보자기는 알고 보면 업사이클링의 좋은 사례였다. 오늘날에도 보자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선물 포장 공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양선혜 씨는 "보자기 한 장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종이나 비닐 포장 대신 보자기는 계속해서 재활용이 가능해요.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병을 담은 가방, 책을 담은 가방, 피크닉의 돛자리, 스카프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죠.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어떻게 스타일링하는가에 따라 고급스러운 분위기나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보자기는 물병, 도시락, 화병, 와인 등 담고 싶은 소품이나 선물을 포장할 수 있다. 지금, 집에 있는 보자기를 펼쳐보자.



와인병 포장하기

- ① 직사각형 보자기를 펼치고 왼쪽 끝에서 7cm 떨어진 지점에 와인병 입구를 놓고 가로로 눕혀주세요.
- ② 보자기로 병을 덮어 끝까지 말아줍니다.
- ③ 병의 아래쪽 보자기를 모아서 단단히 꼬아주세요.
- ④ 병을 세우고 끈 보자기를 접어서 올립니다.
- ⑤ 병 입구의 보자기 여분을 뒤로 접고, 끈 보자기로 마개 부위를 세게 한 번 돌려 감싸주세요.
- ⑥ 보자기 끝을 감싼 틈으로 빼고 매무새를 정리합니다.

소소한 물건을 더 특별하게

양선혜 작가는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자기 포장법 몇 가지를 소개했다.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주고받는 작은 선물을 보자기로 감싸는 법이다. 먼저 와인병이나 물병을 감싸기 좋은 포장법이다. 보자기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나 매듭을 작게 만들어도 괜찮을 때 활용하기에 좋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 '이게 정말 보자기로 만들었다 단 말 이야'라는 감탄이 나온다.



보자기 한 장으로 만드는 나만의 가방

보자기로 나만의 가방을 만들 수도 있다. 보자기 귀퉁이를 묶은 뒤 매듭 두 개를 다시 엮어 손잡이로 만드는 형태다. 화분 등 윗부분을 감싸기 어려운 물건을 포장하거나 수박 같은 형태가 둥근 과일을 담아 들기에도 좋다. 모양과 형태가 자유로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탄탄한 보자기 가방을 만들어 활용해 보자.



손잡이 바구니 만들기

- ① 보자기를 정사각형으로 펼치고 가운데 바구니를 놓아주세요.
- ② 아래쪽 2개의 귀를 모아 마주 잡아주세요.
- ③ ②의 양쪽 귀를 바구니의 손잡이 사이로 넣고 바깥으로 빼주세요.
- ④ ③의 양쪽 귀를 바깥으로 모아 두 번 묶어 나비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 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묶고 매무새를 정리합니다.



명절에는 평소 유지해 온 식습관이 흐트러지기 쉽다. 명절 음식 대부분이 기름진 데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과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식을 막고 즐겁고 건강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글. 이종철



건강한 추석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은?

❁ **혹시 소화불량인가요?**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온다. 명절 연휴에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다 보면 평소에 먹는 양을 초과해 과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배탈이나 소화불량을 겪는 이들이 있다. 대부분의 명절 음식은 달거나 기름기가 많고 열량이 높은 데다 많은 양의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기 때문에 신경써서 조절하지 않으면 위장 장애로 고생할 수 있다.

소화불량은 음식을 쉬지 않고 너무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을 경우,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위나 장에 부담을 줄 때 나타난다.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복부팽만감,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로 이어지게 된다. 소화불량을 사소한 증상으로 방치하다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복통이 심해지거나 구토, 설사가 지속되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한다.

❁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해요**

명절에 과식하지 않으려면 음식을 먹는 순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먼저 저칼로리 음식부터 먹는 것이 좋다. 즉 잡채, 갈비찜과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 전에 나물, 채소 등 저칼로리 음식부터 먹는 것을 추천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저칼로리 음식은 포만감을 줘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하나의 팁으로는 개인 접시에 담아 자신이 먹는 양을 파악하면서 먹는 방법이다.

소화불량으로 속이 답답할 때는 따뜻한 차 한잔이 좋다. 매실차, 썩차, 유자차, 녹차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 특히 매실차는 위장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 소화를 촉진시키고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썩차는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능력을 강화시킨다. 녹차는 속이 더부룩하며 소화가 안되고 헛배가 부르거나 몸이 무거울 때 마시면 효과가 있다.

❁ **가벼운 운동과 반신욕이 좋아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15~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며 충분히 소화시키도록 한다. 간혹 체기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근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면 잠시동안 목을 좌우, 앞뒤로 움직여 주면서 뒷목을 꼭 잡았다가 놓는 것을 반복하면 효과적이다.

냉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려면 반신욕과 족욕이 좋다.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어서 급체한 경우는 일단 머리와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이럴 때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반신욕이나 족욕이 도움이 된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20~30분가량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 소화를 돕는다.

또한 연휴를 보내고 늘어난 체중이 걱정이라면 몸 컨디션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도록 한다. 갑자기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면 몸의 기운이 떨어지고 어지러움, 손떨림, 식은땀이 날 수 있다. 따라서 저녁 식사량을 줄이면서 식사 후 1시간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란색 커피차가 낙동강유역본부 구미권지사예 등장했다. 직원들의 에너지 충전을 돕는 '수(水)타벅스가 간다' 두 번째 주인공이 된 이들은 이날 하루만큼은 연예인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다.

글. 최행좌 사진. 김범기 영상. 김지혜



딩동, 선물이 도착했어요

지난 8월 17일, 낙동강유역본부 구미권지사 직원들은 이색 선물을 받았다. 도착한 선물은 사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수(水)타벅스' 커피차였다. 박지현 사원의 신청으로 도착한 커피차에는 '모두 시원한 커피차로 무더위 타! 파! 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제발 오늘만은 비가 그치길 바라며 마음을 졸였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라며 박지현 사원이 커피차를 마중나왔다. 그의 바람이 통했던 걸까? 먹구름이 걷히고 짹짹한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를 타고 10분은 가야 커피 전문점이 있을 만큼 시내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미권지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무더위를 타파할 커피차를 선물하고 싶었다는 박지현 사원의 사연처럼 커피차는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음료들이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낙동강의 초대형 광역정수장이 있는 구미권지사

낙동강유역본부 구미권지사는 일일 46만 톤의 시설용량을 보유한 광역정수장으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3개의 지자체에 생활용수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약 241,322m²(7만 3,000평) 규모의 초대형 광역정수장이다. 올해 구미권지사는 총 40건의 도급공사와 ISO22000 인증을 위한 낙동강유역 광역 선도정수장 위생관리사업 및 구미광역(2단계) 김천계통 관로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생관리사업은 글로벌 식품 위생 수준의 안전한 수돗물 생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선물합니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충 차단, 기본 수처리효율 강화,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구미광역시(2단계) 김천계통 관로개량사업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안전한 수돗물을 수용가까지 전달하는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김천계통 송수관로의 대체관로 매설을 통해 김천시 및 김천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은 선배와 후배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을 쌓은 업무 베테랑과 근무 경험이 짧은 직원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구미권지사는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열정과 에너지가 넘친다.

이갑수 시설관리부 부장은 “구미정수장은 경북권 중부권역에 있는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에 광역상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후화된 관로를 개선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이벤트가 총주권사업단에 이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이 모여 함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더 많은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늘도 행복 바이러스 ‘뽀뽀’

구미권지사 본관 앞에 낮 기온 30도를 넘는 날씨에도 커피와 음료로 목을 축이려 직원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눈에 띄는 점은 직원 모두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나 머그잔을 들고 있었다.

커피차에서 처음으로 음료를 받은 장우주 대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메뉴가 다양해서 좋네요. 잘 마실게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정한 사원은 “더운 날씨에 커피차 하나로 분위기도 전환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파되는 거 같아 좋아요”, 하상봉 사원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 본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커피차인데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선물 받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날 직원들은 메뉴판을 보며 어떤 음료를 마실지부터가 화제거리였다. “오늘 뭐 마실까?”, “대리님, 뭐 마실 거예요?”, “저는 아이스 카페라테요”라며 삼삼오오 모여 신중하게 음료를 고르는 모습이었다. 이날 커피차에서 인기 메뉴는 단연 딸기라테. 달달한 딸기라테는 당이 필요한 오후에 이를 충전하기에 제격이었다. 김채원 사원은 “커피차라고 해서 맛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어요”라고 엄지척했다.

시원한 음료 한잔이 가진 힘은 대단했다. 커피와 음료를 받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낙동강유역본부 구미권지사는 오늘도 행복 바이러스 ‘뽀뽀’ 전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message.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를
선물하고 싶어요!*



박지현 사원

낙동강유역본부 구미권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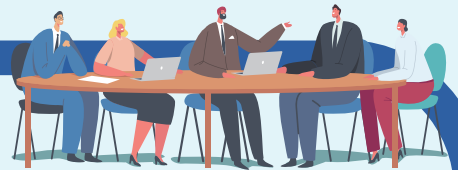
구미권지사에는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에 용수공급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직원분들 및 자회사, 중앙제어실, 수질검사소 분들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 한잔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러 나라와 손잡고 물문제를 해결하는 K-water

K-water는 여러 나라, 여러 기관과 손잡고 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아시아 최대 국제 물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한-메콩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K-water는 다양한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글_ 최행좌 출처_ K-water



아시아 물 위원회, 국제 물문제 해결을 주도

K-water는 지난 2016년 글로벌 물 협력 플랫폼인 아시아 물 위원회(AWC: Asia Water Council)를 설립했다. AWC는 현재 24개국 151개 회원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물문제 아젠다화를 위한 '아시아 물 이슈'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물문제 해결사업인 '워터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AWC는 아시아 최대 국제 물 콘퍼런스인 아시아국 제물주간(AIWW)을 3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제2차 AIWW를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회원기관

24 개국 **151** 개 참여

회원국이 제안한

29 개 사업

후속사업 추진대상

11 개 사업 선정

아시아국제물주간 개최

3 년 주기

2022년 워터프로젝트 추진

3 개국 **4** 개 사업

메콩 유역 물현안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메콩강 총 길이

4,900 km

메콩강 유역

5 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K-water는 지난 2020년 1월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메콩강 유역 5개국의 물현안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메콩강의 수자원 이슈와 한-메콩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오는 10월에는 메콩지역 최대 수자원 국제 콘퍼런스인 '제1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 (MKWF)'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메콩 국제 물포럼

2022년 **10**월 개최 예정

개발도상국에
물교육·
컨설팅사업 진행

물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수

2021년 **20** 과정 → 2022년(계획) **24** 과정

물교육 글로벌 교육사업 참가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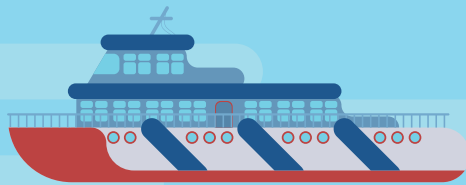
2021년 **393** 명 → 2022년(계획) **426** 명





국제협력

국제협력은 유·무상의 자본, 교역, 기술, 인력, 사회문화 등을 대상으로 국가 간, 국가기관 간, 혹은 비정부시민단체(NGO)와 민간기업 등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K-water는 국제협력으로 세계 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식량 생산의 감소 등 세계는 물과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 나라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제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K-water는 여러 나라, 국제기관과 협력하며 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모두가 맑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K-water는 국제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글_ 최행좌 출처_K-water



국제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이끌다

K-water는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지난 2016년 아시아 물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물 위원회 (AWC: Asia Water Council, 이하 AWC)’를 설립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WC는 현재 24개국 151개 회원기관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아시아 대표 물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AWC는 아시아 물 이슈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워터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년간 회원국이 제안한 9개국 22개 워터프로젝트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방글라데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를 대상으로 2개 사업은 올해 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AWC는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AIWW: Asia International Water

Week, 이하 AIWW)을 개최했다. AIWW는 AWC가 3년마다 개최하는 대표적인 물협력 회의로, 아시아 물문제의 국제사회 이슈화와 실질적인 해결, 지역 내 물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제2차 AIWW에서는 ‘아시아에서 세계로

의 선언문(Asia to World Statement)’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물복지 향상, 아시아 물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실천을 다짐했으며, 선언문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1. 지난 3월 14일,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AIWW)’ 개최식이 열렸다.





2

2. 지난 3월 13일, 인도네시아 라바안 바조에서 제15차 아시아물위원회(AWC) 이사회를 개최했다.



공공사업주택부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과 수상태양광 협력의 향서를 체결해 탄소저감과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AWC는 AIWW 개최 직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 참가해 제2차 AIWW 성과를 홍보하고, 기후변화 대응,물관리 혁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 AWC는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과 제9차 세계물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와 물재해, 아시아 지역의 물 이슈를 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의 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K-water는 AWC 의장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우수한 물관리 역량을 보여

주는 것은 물론 물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메콩 유역의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다

K-water는 메콩 유역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메콩강 유역 5개국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 출범 이후,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의 국제공동협력사업인 ‘메콩 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을 미항공우주국(NASA)과 미국 공병단(USACE)과 함께 공동 추진하는 등 메콩 유역에 관련된 여러 연구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2차 AIWW에서는 ‘메콩강 유역 수자원

협력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메콩강위원회(MRC)와 공동으로 ‘한-메콩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또한 대한민국 환경부와 한-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 협력의향서(SOI)의 체결을 통해 메콩 유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9차 세계물포럼에 참가해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의 협력네트워크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미국 국무부, Stimson센터, 일본물포럼,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메콩 유역의 현안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0월에는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차 한-메콩 국제물포럼(Mekong Korea Water Forum)’이 개최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물문제를 해결하다

최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올해 ODA 사업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K-water 역시 1993년 중국 분하강 유역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33개국 103건의 ODA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환경부 ODA 대행사업을 수행하며,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수자원·상하수도 분야, 기후변화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K-water가 진행 중인 ODA 사업은 11개국 1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8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50억 원 규모의 민간 동반 해외 진출 7건을 달성했으며, 물 시장개척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ODA 및 후속사업을 진행 중이다. ODA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온

K-water는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환경·기후 분야 ODA 및 국제 감축사업을 전담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됐다. K-water는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기반 ODA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외감축목표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환경협력센터 및 국제협력 플랫폼 기반의 물-에너지-도시 분야 신규 사업 발굴, 지속가능한 ODA 사업 운영·관리, 공적원조사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외 투자사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K-water는 그간 축적한 물관리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물교육·컨설팅사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자원 관리자 과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100여 개 국가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을 실시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및 유네스코(UNESCO) 등 여러 국제기관과 연계해 해당국가 물관리 여건에 적합한 국제교육 과정을 개설·운영 중이다.

특히 2020 ~ 2024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기후변화부, 수자원위원회, 환경청 등 파키스탄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키스탄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을 실시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와 협력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상수도 O & M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도 시행 중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다카상하수도청 국제교육연구센터 구축 관련 물교육·컨설팅으로 2019년 ADB 발주로 실시한 사전 기초조사가 2021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주로 이어지면서 물교육·컨설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24개 교육 운영, 졸업생 워크숍 개최, WB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물교육센터 구축 컨설팅 등 국제교육 운영과 물교육·컨설팅을 통해 물분야 글로벌 전문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K-water는 다양한 국제협력으로 세계 유수의 기관과 손잡고 물문제를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3. 지난해 5월, K-water는 우즈베키스탄에 스마트 도시 물관리 노하우를 전수했다.
- 4. 지난해 11월, K-water는 개발도상국에 스마트 그린시티 글로벌 교육을 진행했다.





K-water는 국제협력으로 물문제를 해결합니다

K-water는 글로벌 물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교류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등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물문제 해결을 넘어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K-water의 국제협력 키워드를 소개한다.

글_ 최행좌 일러스트_ 하고고 출처_ K-water

아시아물위원회 (AWC: Asia Water Council)

아시아 물 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물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설립한 아시아 최대 물 협력 기구다. 특별위원회를 통한 아시아 물 이슈 아젠다 개발 및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 총회·이사회 및 3년마다 아시아국제물주간(AIWW: Asia International Water Week)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24개국 151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환경 협력센터

국제환경협력센터(IECC: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는 기후변화, 해양 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K-water는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환경·기후 분야 ODA 및 국제 감축사업을 전담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됐다.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

2020년 1월, K-water가 설립한 한-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는 한국-메콩 국가 간 실질적인 연구와 기술교류를 비롯해 연구 협력 과제 등을 수행하며 정부 및 산·학·연을 연계하는 연구·기술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한다. 오는 10월, 제1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MKWF)을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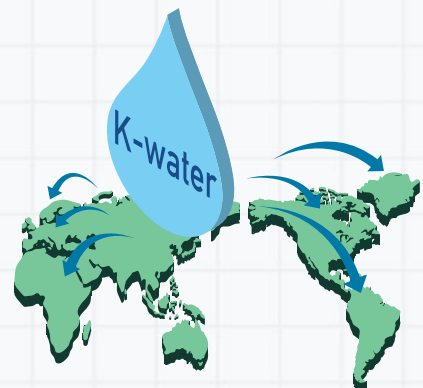


물교육· 컨설팅사업

K-water는 최근 다자간개발은행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물교육·컨설팅사업을 통해 글로벌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우간다 물환경부 수자원연구소 교육 컨설팅(WB)을 시작으로 2022년 방글라데시 다카상하수도청 교육연구센터 건립 타당성용역(KEXIM), 우즈베키스탄 물 아카데미 설립 및 역량강화(WB)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물시장 개척지원 사업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초기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제도로, K-water는 환경부로부터 물시장개척지원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안혜주 사원

신은주 사원

도다영 대리

이예지 대리

BRUTE
MILBBERG
GERMANY
e-mail: info@weyermann.com
menmalt.com
LE MALZ
LE MALT

우리, 맥주 한잔할래요?

울산권지사 직원 4명의 수제 맥주 만들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넓은 시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낙동강유역본부 울산권지사 직원 4명이 수제 맥주를 제대로 즐기 위해 모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주량과 상관없이 맥주를 좋아하는 진정한 ‘덕후’인 이들은 수제 맥주를 만들며 하나의 경험치와 추억을 쌓았다.

글 최행자 사진 김범기



라거가 좋아요? 에일이 좋아요?

분쇄기, 당화조, 호스, 온도계 등 각종 양조 장비로 가득한 수제 맥주 공방에 낙동강유역본부 울산권지사 이예지 대리, 도다영 대리, 안혜주 사원, 신은주 사원이 들어왔다. 수제 맥주를 만들기 위해 모인 이들의 모습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사무실 책장에 놓여있는 사보를 보다가 이전에 향수 만들기 체험에 동기가 참여한 것을 보고, 직원들과 참여하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신청하게 됐어요”라는 이예지 대리, “부서 직원들이 맥주를 좋아하는데요. 수제 맥주를 나눠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신청했어요”라는 도다영 대리, “술은 잘 못 마시지만 같이 근무하는 대리님들과 함께 맥주를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라는 안혜주 사원, “수제 맥주를 만드는 경험은 처음인데요. 더운 여름날 더 생각나는 맥주를 직접 만들 수 있어 기대돼요”라는 신은주 사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맛있는 맥주를 만들겠다’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맥주를 만들기 전에 맥주 시음을 통해 좋아하는 취향을 선택했다. 맥주는 크게 ‘에일’과 ‘라거’로 나뉜다. 효모가 상면에서 발효되면 ‘에일’, 하면에서 발효되면 ‘라거’라고 한다. 오늘 이들이 만들 맥주는 ‘페일 에일 (pale ale)’이었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방법 A부터 Z까지

“맥주는 물, 보리, 홉, 효모가 들어가요. 주원료는 간단하지만 같은 레시피라도 맥아를 불리는 온도나 시간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맥주는 맛이 달라져요”라는 수제 맥주 공장 이광근 대표의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수제 맥주 만들기를 시작했다. 맥주를 만들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원료인 맥아를 계량하는 과정이다. 보리와 밀을 얼마나 섞을지 비율을 정하는데, 비율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10리터의 수제 맥주를 만들기 위해 보리와 밀을 21 대 1 정도의 비율로 섞은 다음 분쇄기로 분쇄했다. 일명 ‘밀링(milling)’ 과정이다.

“제가 분쇄해 볼게요”라며 도다영 대리가 분쇄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어 ‘인간 파쇄기’를 자처한 이예지 대리는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말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우와, 진짜 잘 하시는데요”라며 모두가 이예지 대리의 분쇄 속도에 탄성을 자아냈다. 분쇄된 맥아는 사골국을 끓이는 커다란 들통 같은 당화조에 넣고 끓이며 저어주는 데 이때 멍치지 않도록 잘 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당화 과정은 맥아의 탄수화물을 효모가 발효시킬 수 있는 당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인데, 멍친 덩어리가 많으면 당분으로 전환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아를 천천히 부으며 물과 섞이도록 긴 주걱으로 잘 젓는 요령이 필요하다. 2인 1조로 신은주 사원과 안혜주 사원이 힘을 합쳤다.



66

시중에 나와 있는 맥주는 똑같은 맛과 양이라서 자주 마시다 보면 질릴 수 있는데요.

직접 만든 수제 맥주는 내가 원하는 재료로 원하는 맛과 향과 색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99

“우와, 맥아가 들어갈수록 오토밀 죽처럼 변하는데요”라며 신은주 사원이 신기해하자 “냄새가 정말 구수하고 좋아요”라며 안혜주 사원이 말했다.

계속해서 이예지 대리와 도다영 대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맥아가 들어갈수록 점점 묵직해져요”라는 이예지 대리의 말에 “대리님, 오늘 팔운동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울게요”라며 도다영 대리가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맥아를 다 넣자 “멍쳐진 거 없어 잘 저어주셨네요. 다들 전문가 같은데요”라며 이광근 대표가 숙련된 이들의 모습에 놀라워했다.

이렇게 저어준 맥즙은 약 1시간 정도 당화 과정을 거친다. 기다리는 동안 이광근 대표는 맥주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당화가 끝난 다음 맥즙을 추출한 뒤 시차를 두고 홉을 투입했다. 이후 보일링 과정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이광근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효모를 붓고 통을 봉인한 뒤 일주일가량 발효시켜야 맥주가 완성된다. 완성된 맥주는 병이나 캔에 넣은 다음 일주일 더 냉장 숙성한다. 이렇게 맥주를 만든 날로부터 대략 2주에서 1개월가량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맥주가 완성된다.



시간을 더할수록 맛있는 맥주의 매력

평소에 손쉽게 마셨던 맥주를 직접 만들며 이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간단한 재료로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깨끗한 물에 미네랄과 젖산을 넣는다는 점 등 맥주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몰랐는데 알게 돼서 좋아요. 앞으로 맥주를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도다영 대리는 생각보다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고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맥주는 똑같은 맛과 양이라서 자주 마시다 보면 질릴 수 있는데요. 직접 만든 수제 맥주는 내가 원하는 재료로 원하는 맛과 향과 색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라는 안혜주 사원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엄희원 사원과 함께 맥주를 나눠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도물이 너무 깨끗해 당화

과정에서 미네랄을 첨가해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라는 이에지 대리는 맥주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자마자 부장님께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오늘 클래스를 통해 맥주의 역사와 문화 등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직 맥주를 맛볼 수는 없지만 맥주가 어떤 맛일지 무척 기대돼요”라는 신은주 사원은 고기와 함께 수제 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한다.

수제 맥주는 만들 때 꽤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맥주가 완성될 때까지 청량감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했다. 이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간만큼 분명 맛있는 페일 에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상사와 얼마나 수다를 나눠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말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가 잘 들어주는데 그것만큼 편하고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늘어놓을 때다. 더구나 그곳이 직장이라면 더 골치 아파진다.

글. 최정우 심리상담사



66

P 책임은 틈만 나면 L 주임의 자리로 왔다.
 L 주임의 책상 가림막에 기대 이 얘기 저 얘기를 늘어놨다.
 김장 담근 얘기, 자식 자랑 얘기, 옆 부서 사람 홍보는 얘기,
 시어머니와 싸운 얘기 등 정말 별별 얘기를 쏟아냈다.
 L 주임도 처음에는 잘 들어줬다. 상사이기 때문이었다.

99

필자가 실제로 상담했던 이야기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상사와 불편하게 지내고 싶은 직장인이 어디 있겠는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관계 유지를 위해 상사와 수다를 떨어주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문제는 정도(程度)다. 상사와 얼마나 많이 수다를 나눠야 할까? 상사와 적당히 수다를 나누고, 적당히 수다 거리(?)를 두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사적(私的) 수다를 공적(公的) 수다로 바꾸어라.

수다 중 단도직입적으로 업무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이다. 적당한 틈을 봐야 한다. 이때다 싶으면 얘기를 꺼낸다. “아 맞다. 과장님 근데 제가 올려 드린 결재 보셨나요?” 대화의 소재를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순간 옮겨가는 기술이다.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대화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무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냄으로써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식도 줄 수 있다. 일석이조(一石二鳥)다.

둘째, 대화의 주제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라.

상사에게 '사적인 대화를 하는 공간과 공적인 대화를 하는 공간은 다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심리학에는 고전적 조건형성(classical conditioning)이라는 이론이 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반응을 결합(結合) 또는 연합(聯合) 시켜 주는 것이다. 즉 상사의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 자리에서 상사의 수다가 길어지겠다 싶은 순간 말을 꺼내는 것이다. “김 과장님, 잠깐 차 한잔 마시겠어요?” 상사의 수다가 시작되는 순간 다른 공간으로 상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사에게 '잡담하는 곳과 업무 얘기하는 곳은 다른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왕 수다를 나눌 거면 다른 자리에서 하자'라는 것이다. 내 자리에서는 수다에서 도망치고 싶어도 쉽지 않다. 다른 공간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 않은가? 이를테면 휴게공간, 야외, 빈 회의실 등 다른 공간에서는 수다 공격을 받아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일어서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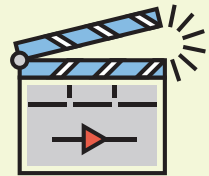
그리고 보면 뭐든 적당해야 좋다. 적당히 얘기하면 대화가 되고, 과하게 얘기하는 수다가 된다. 적당한 공간에서 적당한 양(量)의 대화를 나눠보자.



대한민국을 이끄는 물산업이 뭐길래?

K-water의 사업들, 여전히 어렵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글_ 최행자 출처_K-water



Q.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나요?

21세기 '블루골드'라 불리며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산업. K-water는 물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성장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물산업 펀드를 출자하는 등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등 맞춤형 기업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검증 및 적용 실적 확보 지원을 위해 K-water가 관리하는 121개소의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통합 플랫폼인 K-테스트베드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시제품 실증을 위한 자체 시설 제공 및 성능확인서 발급, 조달 시장 진입 지원, 해외 추가 실적 확보 지원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플랫폼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water가 보유한 물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연계해 대상국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K-water는 기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부터 K-테스트베드의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댐, 정수장, 연구시설을 민간기업에 개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물 기업들의 해외 판로 진출도 지원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인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물산업 혁신성장 생태계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퀴즈 EVENT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K-water가 알려주는 물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이야기' 영상을 확인하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Q1. 21세기 '블루골드'라 불리며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은?

Q2.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이르는 말은?

Q. 클라우드 기반의 워터라운드(wateRound)가 궁금합니다.

K-water는 대한민국 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참여자와 함께 다양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워터플랫폼인 '워터라운드(wateRound)'를 론칭했습니다.

워터라운드는 K-water가 네이버와 협력해 다양한 참여자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솔루션의 원료가 되는 고품질의 물관리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해 참여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솔루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초기 아이디어를 보유한 참여자가 물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워터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솔루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분석, 개발환경,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워터라운드는 개발된 디지털 워터 솔루션에 국내외 다양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도 제공합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공유해 오픈 소스 기반 R & D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기술자료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물기술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워터라운드는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발굴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K-water와 참여기업의 혁신 솔루션을 융복합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노력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디지털워터플랫폼 wateRound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디지털워터플랫폼 wateRound 홍보 영상'을 확인하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Q3. K-water가 론칭한 디지털워터플랫폼은 무엇일까요?

Q4. 개발된 디지털 워터 솔루션에 국내외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이벤트 참여방법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쿠폰 10명
접수 마감일 9월 25일
선물 발송일 10월 15일경
※ 10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스마트 물관리 체계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시연회 개최



가뭄, 홍수 등 대한민국도 예외 없는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K-water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체계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글. 최행좌 사진. K-water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시연하다

지난 8월 11일, K-water는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인 댐-하천 디지털트윈(디지털 가람플러스: Digital GARAM+, 이하 댐-하천 디지털트윈)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재현 K-water 사장,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에 대응한 댐 방류 등 전국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상황을 비롯해 최신 기술 기반의 댐-하천 디지털트윈을 선보였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복제해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하는 기술로, 댐-하천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와 3차원 가상 세계에서 유역 전반의 홍수 영향을 사전에 모의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현재 K-water는 섬진강 유역에 댐-하천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연계해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사업을 2026년까지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댐-하천 디지털트윈이 구축되면 3차원 가상공간에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홍수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등 실제 홍수 발생 시 최적의 댐-하천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다

K-water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디지털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선도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사업을 중점 추진해왔다.

댐-하천 디지털트윈은 댐-하천 등 물리적 대상을 가상세계에 복제해 기상과 수질, 수문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하면 이후 최적의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 댐과 하천의 수위 변화와 피해 발생 여부 등 파급 효과를 예측해 홍수기 강우예보 시 댐-하천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K-water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한 물관리를 선도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66

K-water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한 물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99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FOCUS 1



FOCUS 2



담주변지역 농가와 상생하며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다

제4회 물벗나눔장터 개최

K-water 본사에 복숭아와 배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에게 복숭아와 배를 전달하는 기부 행사로 K-water는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글. 최행좌 사진. K-water



댐주변지역 농가를 돕는 직거래 장터 진행

지난 8월 30일, K-water는 본사에서 댐주변지역 복숭아·배 농가와 함께 '제4회 물벗나눔장터 복숭아·배 팝업 스토어' 행사를 개최했다.

'물벗나눔장터'는 K-water가 올해 창립 55주년 맞이해 새롭게 추진 중인 지역상생형 ESG 경영실천 프로젝트다.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K-water 사업장이 있는 전국 각지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일부는 K-water 임직원이 직접 구매 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연중 프로젝트다.

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폭우와 폭염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댐, 섬진강댐 및 주암댐 주변지역 복숭아·배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직거래 장터로 마련됐다. 이날 복숭아와 배 주산지인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한 가운데 각 농가는 복숭아·배와 배즙 등 지역 내 우수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K-water는 팝업 스토어와 함께 사내 게시판을 이용한 사전 택배 판매도 병행해 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착한 기부 행사도 병행

이날 K-water는 지역 취약계층에게 복숭아와 배를 전달하는 기부 행사도 열어 의미를 더했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2,400만 원 상당의 기부 증서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충주댐, 섬진강댐, 주암댐 주변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K-water는 행사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복숭아와 배를 구매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선순환 구조형 착한 소비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한가위를 앞두고 올 한 해 폭우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상생 활동과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water 물벗나눔장터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댐주변지역에서 재배한 사과, 딸기, 홍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으며, 총 1억 5,000만 원가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K-water News

1

K-water,

전국 댐 가뭄대책 종합점검 실시

지난 8월 8일, K-water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주암댐지사에서 가뭄 대응을 위한 전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댐의 가뭄 상황 및 용수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댐 저수량의 경우, 전국 34개 댐 저수량은 예년의 92% 수준이나 한강 유역(예년의 112%)을 제외한 낙동강 유역(예년의 74%), 금강 유역(예년의 84%), 섬진강 유역(예년의 64%)의 댐 저수량은 예년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총 11개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K-water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가뭄 단계로 관리 중인 댐의 하천유지용수 등을 감량해 댐 용수를 비축하는 한편, 댐 간 연계 운영, 하천수 취수, 농업용 저수지 등 지역 수원을 활용한 대체공급 등의 가뭄대책을 총동원해 댐 용수를 관리해왔다.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K-water는 장기 가뭄에 대비해 댐-댐, 댐-하천 등 수원 간의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용수비축 계획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물 절약 추진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2

K-water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

K-water는 물의 다양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과의 ESG 소통을 강화하고자 'K-water 대학생 서포터즈'를 출범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K-water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난 8월 9일 K-water 본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진행됐으며, ESG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7월 한 달간 대학생 서포터즈가 직접 국내 곳곳에 숨어있는 물길을 찾아 친환경 여행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소개하는 이벤트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수막 업사이클링 에코백 제작을 시작으로 ESG 실천 다짐, 친환경 물길 여행기 등 ESG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서포터즈 활동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물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3

K-water 장학회

2022 소통캠프 개최

K-water는 지난 8월 13 ~ 14일 이틀간 인재개발원에서 'K-water 장학회 2022 소통캠프'를 진행했다. 'K-water 장학회'는 K-water가 사업지역 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출범해 운영 중인 미래육성 장학사업으로, 중·고등학생 200여 명에 최대 5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링과 진로특강, 입시상담 등의 다양한 성장 지원 활동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우리가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K-water 장학생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여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K-water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꿈과 열정에 대한 특강 등을 통해 도전정신과 목표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골든벨 퀴즈, 모의주식 투자 대회 등 팀별 활동과 함께 주호민 작가의 강연, 최현우 미술사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캠프에는 충남대 및 부산대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멘토 50여 명도 참여해 장학생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4

**2022년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
국민 사연 모집**

K-water는 지난 8월 12일부터 오는 9월 9일 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전국 소외가정의 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2022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 국민 사연 모집을 진행 중이다.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는 저소득 가구의 낙후된 주방, 욕실 등 '물 사용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K-water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K-water는 2014년부터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640개소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해 왔다.

주요 지원내용은 △주방, 욕실 등 노후 물 사용 공간 수리, △재래식 화장실 가구의 욕실 신설 또는 전면 개보수, △상하수도 배관 공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력해 지원 규모를 당초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K-water 소통플랫폼 단비톡톡(www.kwater.or.kr/danbitoktok)에서 확인 가능하며, 단비톡톡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5

**K-water,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성금 1억 원 기탁**

지난 8월 23일, K-water는 최근 집중호우 재난 지역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임직원 성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성금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K-water 임직원은 피해지역 식수용 병물 및 생필품 등의 구호 물품 지원, 수해복구 활동 참여 등을 추진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9개 지자체 등에 식수용 병물 약 13만 병을 지원했으며, 향후 약 2만 5,000병의 식수용 병물을 강원도 지역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8월 19일에는 충남중부권지사 임직원 봉사단이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을 방문해 포도밭 토사 제거 등의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강원도 지역에는 한강유역본부 및 강원지역협력단, 소양강댐지사 등 임직원의 급여 나눔 등을 통해 마련한 약 3,000만 원을 활용해 구호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6

**충주댐(청풍호) 제3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개최**

지난 8월 31일, K-water는 충주댐(청풍호) 제3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충주댐(청풍호) 제3호 수상태양광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K-water가 추진 중인 친환경 물 에너지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충주댐(청풍호) 제1호 수상태양광 인근 공간을 활용해 2.6MW의 수상태양광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약 1,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462MWh의 청정에너지 생산과 연간 1,581톤의 탄소 감축 및 약 6,000배럴 원유수입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충주댐(청풍호) 제3호 수상태양광은 기존 충주댐(청풍호) 제1, 2호 수상태양광과 달리 꽃 모양으로 디자인해 수변 경관을 함께 고려했다. 이에 주변 유람선 운행 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충주댐(청풍호) 제3호 수상태양광은 K-water 최초로 지역주민들의 제안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축하합니다

방울이와 DIY 당첨 작품

8월호 <방울이와 DIY>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실(010-****-4421)



최○준(010-****-1513)



김○겸(010-****-3642)



박○철(010-****-4349)



이○현(010-****-7617)



이벤트 선물 발송일 9월 15일경
※ 9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퀴즈있수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황○성 010-****-7702 김○진 010-****-8220
- 김○남 010-****-5413 이○미 010-****-4414
- 이○철 010-****-0910 고○숙 010-****-5088
- 이○연 010-****-0253 송○영 010-****-8736
- 서○인 010-****-6172 임○영 010-****-0440

🎁 #kwateresg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eunjin0210 | @kima0world | @eom_o.o | @jhyinj7000 | @ehdi1026
- @sssssoriii | @eyoui1004 | @a4143224 | @haaru_529 | @suuuu_j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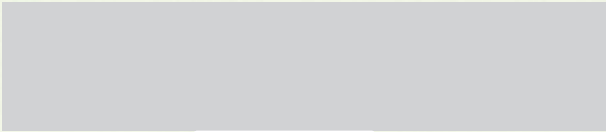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20명

- 박○정 010-****-5259 조○지 010-****-7871 김○심 010-****-4311 김○순 010-****-3674
- 김○심 010-****-7672 김○영 010-****-4749 한○아 010-****-8226 유○아 010-****-4774
- 한○란 010-****-2288 박○정 010-****-6321 정○서 010-****-8024 김○호 010-****-3827
- 정○영 010-****-2542 송○원 010-****-9948 안○영 010-****-2154 조○석 010-****-6499
- 김○려 010-****-1525 표○숙 010-****-3208 이○호 010-****-8780 정○현 010-****-7469

K-water와 함께 하는 나만의 국제협력 도시 만들기

K-water는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물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섭니다.
세계 각국과 손을 잡고 깨끗한 물을 누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K-water의 국제협력 도시를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국제환경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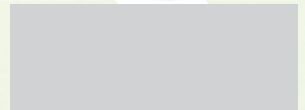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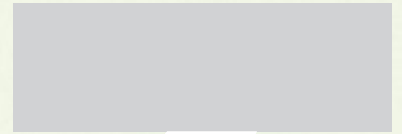
K-water는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환경·기후 분야 ODA 및 국제 감축사업을
전담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됐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인증사진(2MB)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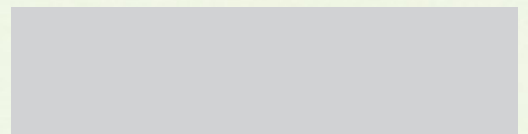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명
접수 마감일 9월 25일
선물 발송일 10월 15일경
※ 10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선정된 사진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소개됩니다.



K-water의 마스코트 '방울이'

방울이도 국제협력을 위해 비행기 타고 갑니다~



아시아 물 위원회(AWC)

K-water는 AWC를 설립하고 아시아 물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나라와 손잡고 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 구독을 부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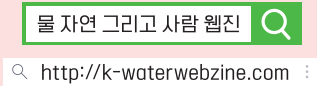
매월 K-water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구독해 주세요.



웹진 구독하는 방법

첫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 접속한다.



둘째

구독신청을 클릭한다.



셋째

카카오톡 / 이메일 중 선택한다.



넷째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벤트 응모하고 선물 받자!



이벤트 하나. 퀴즈있수다 이벤트

이벤트 상품 커피 음료 쿠폰

이벤트 참여방법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있수다 이벤트를 클릭한다.

2. 영상을 보고 정답을 작성한 다음 제출하기를 누른다.



▲ 웹진 바로가기



이벤트 둘.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화면 캡처하기

이벤트 상품 커피 음료 쿠폰

이벤트 참여방법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다.
2. 채널 추가화면을 캡처한다.

3. QR코드를 스캔 후 이름, 연락처, 화면 캡처 사진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누른다.



▲ 이벤트 바로가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금 만나보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가 신분증입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방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